매일 INDEX

4면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관리본부 개소식

전주매일

2025년 9월 3일 수요일 (음 7월 12일) 제381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원, 도·시군 여성단체 참석자들이 양성평등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평등의 시작, 행복한 전북

전북자치도 '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특별강연·퍼포먼스 통해 '존중' 실천 다짐

전북특별자치도는 2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등의 시작, 행복한 전북'을 슬로건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도민 모두가 성평등 인식을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 앞서 진행된 특별강연에서는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인구감소 시대, 여성 고용의 의미와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전 차관은 저출생 시대에 대응한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와 일·가정 양립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본 행사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표창이 수여됐다. 도는 그간 도내 각 분야에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온 16개 단체와 19명의 유공자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진 상징 퍼포먼스는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와 함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양성평등 꽃을 피워내는 장면을 함께 연출하며, 성별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향한 공동체의 실천 의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양성평등은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여는 출발점"이라며, "가정에서는 돌봄의 책임을 나누고, 일터에서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일상에서는 존중이 살아 숨 쉬는 문화가 자리잡도록 정책과 제도를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캠페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국내 대표 독서출판문화축제 팡파르

전주독서대전, 5~7일 한벽문화관·완판본문화관 일원서
'넘기는 순간' 주제로 강연·공연·체험·북마켓 등 준비
'책' 본질 집중한 프로그램 선별… 차별성 있는 축제 지향
차인표 작가 강연·평산책방 등 대표 추천 프로그램 선정

독서의 달 9월을 맞아 책의 도시 전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서출판문화축제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전주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일원에서 '제8회 전주독서대전'을 개최한다.

'넘기는 순간'을 주제로 열리는 제8회 전주독서대전은 전주시 독서생태계를 구성하는 60여 개의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독서 문화 축제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책과 관련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 세대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축제로 열린다.

시는 △차인표 작가 강연 △평산책방 △독서올림픽 △실록을 지켜라 등 올해 전주독서대전의 4개 추천프로그램을 선정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 '넘기는 순간'이라는 주제를 살려 책장을 넘기며 새로운 세상을 만나듯 독서라는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축제의 밑그림을 그렸다.

시는 20~30대 청년 세대가 주도하는 독서토론과 워크숍을 추진하고, 전주하계 올림픽 유치를 응원하는 의미를 담은 독서올림픽을 상시 운영하는 등 신규프로그램을 확대했다.

동시에 올해 주제인 '넘기는 순간'의 의미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참여형 전시를 진행하고, 어린이 도서뿐 아니라 특색 있는 주제를 가진 전국 단위 서점·책방의 참여로 전 연령을 아우르는 북마켓을 운영한다.

여기에 사회적 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친환경 축제를 지속 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초청 강연인 '작가와 만나는 순간'에는 최신 출판 트렌드와 시민들의 폭넓은 관심사를 반영해 대중적으로 호감도가 높은 다분야 강연자를 초청했다.

'제8회 전주독서대전' 포스터

구체적으로 △차인표 작가의 '그의 하루에 생긴 세 가지 습관' △고은지 작가의 '힐링, 마음' △이호 전북대 교수의 '살아 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 △최은영 작가의 '변화하고 성장하는 글쓰기' 등의 강연이 마련된다.

이밖에 '전주 올해의 책 강연'에는 강경수 작가와 이희영 작가, 김소영 작가, 김근혜 작가가 강연을 맡는다.

첫날 개막식 무대에서는 전주시립합창단이 '책'과 연관된 다양한 곡으로 합창 공연을 펼치고, 온 가족이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인형극과 낭독극, 비눗방울 공연, 저글링 공연, 어린이 태권도 공연 등이 준비될 예정이다.

올해 독서대전에서는 또 어린이 독후활동 대회와 가족 독서 골든벨, 어린이 동화구연 대회 등 경연 대회를 통해 독서로 한 뼘 성장하는 시간을 함께한다.

특별 전시로는 △책 속 문장이 쓰인 태그를 뽑아 키링으로 가져가는 체험 전시 △'전주독서대전'과 '넘기는 순간'으로 자유롭게 n행시 짓기 △아크릴 조형물에 자신의 감정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는 전시 등을 만날 수 있다.

공유하고 싶은 인생 책을 소개하는 전시와 '2025 전주 올해의 책' 연계 시민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시민 참여 전시와 '완판본'을 주제로 조선 출판문화를 체험하는 연계 전시도 선보인다.

박남미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독서는 내면의 성장과 변화를 안내하는 길잡이이며, 전주독서대전은 책과 독서를 사랑하는 시민들과 발을 맞춰 성장해왔다"면서 "올해는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독서의 계절인 9월, 읽고 쓰고 만드는 시민들의 숨결로 한층 무르익은 책 축제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익산시-코스트코, 상생 '맞손'

지역 맞춤형 협력 모델 제시
소상공 동반성장 협력 구축
지역경제 기여 확대 등 대응

익산시가 코스트코코리아와 전국 최초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대형 유통기업과 지역사회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병도 국회의원, 김경진 익산시의장,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와 송혜숙 범창산업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생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역과 함께하는 유통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관련사진 3면〉

이번 협약은 코스트코가 지방자치단체와 공식적으로 상생 협약을 맺는 전국 첫 사례이며, 시가 주도한 지역 맞춤형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코스트코와 토지주인 범창산업은 시설 준공과 개점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익산시와 시의회는 행정절차의 신속 이행 및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지역 소상공인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역경제 기여 확대, 실질적인 상생 성과 창출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형 유통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와 유통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전국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전국 처음으로 상생에 나서준 코스트코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지역 정치권에 감사드린다"며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한 줄 소식 '더 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